

서운영의 '집과 사람'



여성의 공간

요즘 주택시장이 새롭게 개편되고 있다.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면서 짓기만 하면 무조건 팔리던 시대를 지나 지어도 팔리지 않는 시기가 되었고 이에 과거와 달리 특화된 아파트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

그 트렌드 중 하나가 여성의 눈높이에 맞추어 여성의 공간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최근뿐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다. 1970~8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된 여성의 지위향상이 90년대부터 서서히 가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파트 구매에서 주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성의 공간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대표적 여성공간이라 할 수 있는 안방이 비대해진 것도 이 무렵이다.

이전까지는 일부 대형주택에서나 가능하던 1가구 2화장실이 90년대부터 중대형 아파트는 물론 중소형 아파트에까지 확대되었고, 여기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부가되었다.

한편, 최근의 경향은 주방의 변화이다. 과거 단순히 식사를 준비하던 공간이 점차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성이 주방에 있으면서도 거실에 있는 가족과 마주보며 대화를 할 수 있는 대면형 주방을 넘어 이제는 인터넷과 가계부

정리를 하는 곳인 엄마 책상 이른바 맘스 데스크(mom's desk)를 두기도 한다.

또는 맘스 데스크를 식탁과 덧붙여 설치해 엄마가 아이의 숙제를 봐 주는 곳 내지는 제2의 거실로까지 활용하면서 이곳을 엄마의 공간이라는 뜻으로 맘스 오피스(mom's office)라고도 부른다. 요약해보면 최근 20년 동안 안방과 주방 등 여성의 공간이 매우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여성의 지위향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향상된 여성의 지위를 주택 내에서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존의 여성공간을 강화하여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전까지 여성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공간을 새로이 제공하는 것이다.

20세기 페미니즘의 경향은 지금까지 남성 전용물품 인식된 것을 정취하는 과정이었다고 하겠다. 대학입학과 참정권 등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알려진 것은 실은 20세기 초 격렬한 투쟁으로 획득해낸 것이고 그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여성들은 전통적인 역할이었던 현모양처에서 벗어나 전문직에 진출하거나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등 지금까지 남성의 영

역으로 알려진 새로운 세계에 도전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20세기 여성의 복식은 놀라게 변화되었다. 19세기까지 여성의 복식은 동양과 서양에서 모두 발목을 덮은 긴 스커트 형태의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여성은 바지를 입기 시작했는데 이는 본래 남성의 옷차림이었다. 즉 여성의 지위향상은, 현모와 양처라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탈피해 남성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주택 내에서도 향상된 여성의 지위를 표현하는 방법은 본래 남성의 고유공간이라 알려진 곳을 여성에게도 제공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의 사대부 주택이 여성을 위한 안채와 남성을 위한 사랑채로 나누어져 있었듯 본래 주택은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으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의 사랑이나 유럽의 서재 등 남성의 공간은 정보와 지식의 습득 및 사회교류를 위한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남성에게만 허용되었을 뿐이다.

여성에게는 출산과 육아 및 가사의 의무만 부과되었고 이는 서재와 사랑채나 여성의 공간, 침실과 주방은 여성의 공간이라는 이분법으로 재확인되었다. 그리

고 여성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우주여행을 하는 지금에도 이러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부가되고 주방에 맘스데스크를 놓아 맘스 오피스를 만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일견 향상된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여성의 자리는 침실과 주방이요, 그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현모와 양처라는 것의 충실한 재확인이다.

여성의 공간으로 알려진 곳을 더욱 강화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여성에게는 금지된 공간이었던 곳을 새로이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일부 부유층에나 있었지만 서재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지만 그곳은 남자의 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주방 한 칸에 맘스 데스크를 두어 그곳을 맘스 오피스라 이름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방 하나를 할애하여 만든 서재는 남성가장의 방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의 서재, 남편의 서재는 익숙하지만 어머니의 서재, 아내의 서재는 아직도 요원하다. 대신 부엌 한 칸에 마련된 맘스 데스크와 맘스 오피스가 있을 뿐이다.

<건축칼럼니스트>

특별기고

광주·전남 정치권이 힘을 합칠 때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

반영기준 없이 '제멋대로' 변경했고, 광주·전남은 '대놓고' 홀대한다는 아쉬운 생각 뿐이었다.

유감스럽게도 내년 예산을 반영될도 밝은 전망은 기대하지 어려울 것 같다. 시·도가 동분서주하고 있음에도 광주·전남의 현안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 3D 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구축, 남해안철도,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등의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 전남의 경우 이번에도 요청액의 10분의 1 이상 반영되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상식적으로 재정력이 떨어지는 광주·전남에 더 많이 반영해야 하는데, 오히려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타 시·도에 국비를 우선 반영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다고 정부나 대통령 탄압하고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예컨대, 국비로 추진하는 국가사업

을 확보하는데 광주·전남이 공동전선을 펼쳐야 한다. 시·도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의 정치권부터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실패사례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2008년 국가식물산업단지 지정과정에서 전북 익산에 빼앗긴 경우와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시 대구·경북에 한남한 사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양 사업 성공을 위해 전북과 대구·경북 정치권이 지역구를 가리지 않는 효율적인 기능분담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대응할 때 광주·전남 정치권은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자성이 앞서야 한다. 지역구 사업만 관심을 갖거나 그나마 독자적으로 대응해 성공률이 낮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필자의 기억으로 전남도가 추진했던 F1 코리아그랑프리 정부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공식 요청한 정치인을 본적이 없다는 점도 되새겨 볼 일이다.

아울러 MB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인 장성의 국립심혈관센터는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데 반해,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으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국가심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화순이 국가백신지원센터 유치에 오송, 송도, 안동과 경합 중임에도 우리 정치권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기다린다.

마침 민선 6기 들어 광주·전남의 상생의지가 가열되고 있다. 의당 정치권도 화답해야 한다. 영남권이나 충청권처럼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나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는 협력체계를 구축이 절실하다. 우리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확신한다. 광주·전남이 국회 확보를 위해 별개로 개최하는 지자체와 국회의원 간담회를 광주·전남으로 확대 개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광주·전남이 합하면 힘도 커지고 당연히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전남의 지지도를 향상시키는 유일한 해법이 아닐까 싶다.

옴부즈맨 칼럼

'통(通)'하였는가?



이묘숙 송은결리관장

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 약한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리더 말이다. 감동이란 그러하다. 굳이 강요하고 억지 부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진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통(通)'하였기 때문이다.

영화 '명량'이 1000만을 넘어 연일 한 국영화의 기록을 새롭게 써가고 있다. 영화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예술성이 대만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하나의 현상이며, 지금 우리에게 생각과 느낌을 주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한 열광이다. 환란 속에서 아니 절망의 끝자락, 절벽의 그 끝에서 장군의 리더십은 오늘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국민들 가슴에 진한 울림을 주었다. "생즉사 사즉생"을 외치며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을 내던지는 장군의 모습은 이 시대 지도층이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더욱 더 감동이었다. 아마도 영화를 보는 동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의 모습을 그리며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길 갈망했을 것이다. 바로 관객과 영화가 통한 것이다.

교황님의 행보나 영화 '명량'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현실을 되짚어 본다. 국민의

아픔도, 시간을 재촉하는 민생 현안에도 자신의 입지나 당리당론에만 급급하여 본분을 망각하는 우리네 정치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일방적이고 소통을 이루어 내지 못하는 권력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누구라도 자신의 이익과 권위에 취해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백성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리더는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구성원이 원하는 것을 알고자 노력하고, 통하고자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통은 인간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서로의 소통으로 질서와 규범을 만들고 더불어서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진정 서로가 통하고 있는가? 정부와 국민이, 지역과 지역이, 그리고 사람들 서로가 진정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로 소통하는 사회가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이다. 문화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터너나 문화관 사회 속에서 서로 통하여 향유하고 새롭게 열매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금년 2014년은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20년간 10회의 행사를 진행한 업적과 성과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프로젝트 '달콤한 미술-80 그

후'전의 파행으로 연일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란은 광주비엔날레의 그 동안 쌓였던 문제점이 표출된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나 예술인들과의 소통도 없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운영된 시스템이 만들어낸 문제이기도 하다. 덧붙여 '통(通)'하려는 그 어떤 노력이나 반성도 없이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광주비엔날레는 열리고 있는가?' 그 정체성과 목적성 또한 점검이 필요하다.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행사는 어느 누구와도 통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음과 눈길은 마음과 통하는 곳을 따라 간다. 흥행이란 모름지기 관객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소통의 과정을 거쳐 문화와 예술이 '통통' 튀는 멋진 축제로 거듭나는 비엔날레를 원한다.

언론의 역할은 소통하지 못함을 지적하여 개선시키고, 멋지게 소통하는 사회의 모습을 정리하여 보도하는 것이다. 언론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 이 또한 독자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앞으로 도 언론에 애독자들이 '통(通)'하는 광주 일보가 되어 주길 바란다.

社說

문화전당 적자 해소 특별법 통과에 충력을

내년 가을에 문을 열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에 압운이 드리우고 있다. 전면 동시 개관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데다 개관을 해도 출발 초기부터 심각한 운영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우려되는 것은 전당 전체를 구성하는 5개 원 중 핵심인 민주평화교류원(구 전남도청 일부 등 6개 보존 건물)이 아직 설계 중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착공을 한다 해도 공사 기간만 15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동시개관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적자 구조는 더 큰 문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따르면 운영이 본격화되는 개관 이듬해 모두 86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수입은 62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출발부터 무거운 빚더미에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상 재정자립도(예산 대비 수익의 비율) 30%대를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

영의 기준으로 본다. 하지만 문화전당의 자립도 목표치는 2015년 2.5%, 2016년~2017년 7.2%, 2018년~2020년 10%로 낮게 잡혀 있다. 결국 이러한 취약한 수익 구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특별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 지역 국회의원과 사회단체가 마련한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에는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따라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만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9월4일로 잡혀있는 문화전당 개관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법안 통과를 위해 광주 지역사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충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1사단도 가혹행위로 멍들고 있다니

지역 향토사단인 31사단도 가혹행위로 멍들고 있다. 지난 5년간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병이 무려 1000여 명에 달하는 등 뿌리 깊은 군 폭력문화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우애와 군의 기강이 사라지면서 총체적 군기 문란상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27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육군 제31보병사단의 최근 5년간(2009~2014년)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부대 내·외에서 발생한 폭행·가혹행위로 강등·영창·근신 등 징계를 받은 사병이 1085명, 간부는 42명으로 나타났다. 징계 처분자는 2009년 137명을 비롯 ▲2010년 105명 ▲2011년 247명 ▲2012년 223명 ▲2013년 280명 ▲금년 7월 말 현재 93명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군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관할하는 군사 옴부즈맨 제도 도입, 다양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인권감시기구 설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등은 늦출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제도 개선을 외면한다면 군 폭력은 뿌리 뽑을 수 없다.

無等鼓

평소에는 어떻게 보이는 빠른 안경이 쓴 소심한 신문기자다. 한데, 공중전화 박스에서 옷을 갈아 입는 순간 슈퍼히어로로 변신한다. 꼴쫄이 바지 위에 팬티를 덧입은 우스꽝스러운 패션의 그는 하늘을 날며 악당을 물리친다.

미국의 양대 만화 출판사인 마블과 DC 코믹스가 내놓은 히어로는 무궁무진하다. 마블 측 대표 주자는 스파이더맨, 엑스맨, 헐크, 아이언맨이다. DC 코믹스는 배트맨과 원더우먼, 그린 랜턴을 내세운다.

수많은 히어로 중 아마도 가장 유명한 이는 앞에 언급된 '슈퍼맨'일 터다. 1938년 만화 DC 코믹스를 통해 등장한 '슈퍼맨'이 인기 캐릭터가 된 건 영화 '슈퍼맨'(1978) 덕이다.

'슈퍼맨' 시리즈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1952~2004)는 슈퍼맨과 동의어로 통했다. 하지만 1995년 낙마 사고를 당해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되고 만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1996년에는 휠체어에 앉은 채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 등장해 기립박수를 받았다. 2000년, 그가 스스로의 의지로 손가락 하나

를 움직였을 때 전 세계가 감동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척추 연구 확대를 호소하는 운동과 의료보조 확대를 촉구하는 사회운동에 앞장서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근 '슈퍼맨' 만화책 한 권이 역대 만화책 판매 최고가인 32억 원에 낙찰됐다. 이베이는 지난 25일 1938년도 '액션 코믹스 1호' 한 권이 320만7852달러(32억6000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발간 당시 판매가는 10센트에 불과했다. 액션 코믹스 1호는 슈퍼맨이 처음으로 등장, 수집가들의 예를 태

운 품목이다. 지금까지 최고가 기록도 2011년 동일인 만화책이 216만 달러에 팔린 것이었다.

이번 경매 수익금 일부는 크리스토퍼 리브가 아내와 함께 만든 '크리스토퍼 데이비드 리브 재단'에 기부된다고 한다. 재단은 두 사람 사후에도 척추신경 재생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슈퍼맨'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만들어낸 재단을 통해 한계를 딛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갈 또 다른 '슈퍼맨'들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